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충북지역본부 시범사업단 출범!

생기원 충북지역본부 시범사업단 현판식 개최

충북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생기원 충북지역본부 시범사업단’이 출범했다. 지난 3월 8일 생기원은 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시범사업단 출범을 기념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충북지역의 앞날을 위한 시범사업단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양한 의견과 메시지가 오고가는 분위기 속에, 새롭게 발을 내딛는 충북지역본부 시범사업단의 앞날이 밝아 보이는 듯했다.

충북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의 요람

“생기원은 기술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생기원만의 근접기술 지원체계 구축의 방점이 될 충북지역 내 본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본부 설립에 앞서 지난 2011년 오창의 ‘태양전지스마트공정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충주의 ‘에너지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며 충북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센터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충북지역본

부 시범사업단’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단은 2023년까지 충북지역본부 설립을 목표로 충북도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진행된 ‘생기원 충북지역본부 시범사업단 현판식’에서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기원의 앞날과 계획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이영수 원장은 “앞으로 생기원이 기업에 많은 지원